

초기 언해문헌의 동국정운식 한자음 연구

- 주음 오류와 복수음 의미구별 양상을 중심으로 -

伊 藤 貴 祥 (이토 다카요시)*

본고에서는 한자음에 대한 조선 초기 학자들의 지식과 학술적 태도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月印釋譜》, 《楞嚴經諺解(木版本)》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가자나 다음자에 대한 정확한 주음으로 보아 네 문헌의 주음자들은 상당한 음운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月印釋譜》 주음자에 이르러서는 ‘修行’의 주음에 관한 독자적인 주음기준을 스스로 고안할 정도였다.

둘째, 오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주음자들이 현실한자음과 근고한어음을 참고하면서 한자에 독음을 달았던 것이 드러났다.

셋째, 불교용어는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에서는 구전되어온 독음이나 운서에 따라 독음을 달았다가 《月印釋譜》 이후로는 불교학적 지식에 입각한 독음을 달기 시작하였다.

핵심어: 동국정운, 한자음, 다음자, 복수음, 통가자

1. 서론

訓民正音 창제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만들어진 東國正韻式 漢字音은 《釋譜詳節》(1447)부터 《靈驗略抄》(1485)까지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20개 문헌에서 사용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운서인 《東國正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韻》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헌에서 실제로 사용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고에서 문헌음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류의 존재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사용한 문헌에는 간혹 오류로 판단되는 註音이 발견된다. 그러한 오류를 정리하여 경향성을 분석함으로써 문헌의 註音者들이 한자음을 달 때 무엇을 참고하였는지 추측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복수음의 존재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사용 문헌에서는 동일한 한자에 여러 음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복수 주음의 대부분은 漢語에 원래 존재하는 多音字의 복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¹⁾ 《東國正韻》에서는 한 한자에 대해서 복수의 독음을 제시하면서도 그 의미 구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으므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다음자 연구는 문헌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다음자 중에는 문헌에 따라 주음의 구별 여부나 구별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자도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각 문헌의 주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운학적 지식이나 주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정운식 문헌음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로 차익중(2014)를 들 수 있는데,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연구와 차별화된다.²⁾ 첫 번째 차이는 다루는 문헌의 범위이다. 차익중(2014)에서는 여러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을 개관하기 위해 《訓民正音諺解》,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月印釋譜》, 《楞嚴經諺解(活字本)》, 《法華經諺解》, 《南明集諺解》, 《靈驗略抄》의 8가지 문헌을 자료로 사용하였지만, 본

-
- 1) 多音字와 같은 의미로 破音字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破音 혹은 破讀音은 좁은 의미로는 ‘해당 한자가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라 파생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부여된 원래 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음’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多音字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당시 집필 중이던 원고를 흔쾌히 보여주신 차익중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고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자료를 초기 언해문헌인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月印釋譜》, 《楞嚴經諺解(木版本)》 4가지로 한정하여, 대신 차익중(2014)와는 달리 현존하는 모든 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차익중(2014)의 자료가 총 15권, 한자 1940餘字(유형빈도)인 데에 비해, 본고의 자료는 총 36권, 한자 2496字(유형빈도)이다.³⁾

두 번째 차이는 연구 범위이다. 차익중(2014)에서는 《東國正韻》과 동국정운식 문헌음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東國正韻》음과 문헌음의 대비는 未收錄字와 不一致音의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이 분야에 관한 논의는 차익중(2014)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중복을 피하고 문헌음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세 번째 차이는 연구 방법이다. 차익중(2014)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이지만 오류의 원인이나 다음자 구별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차익중(2014)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대부분 현실한자음의 개입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원인, 예컨대 近古漢語音의 영향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차익중(2014)에서는 복수음 구별 기준에 대하여 《廣韻》, 《集韻》 등의 운서만을 참고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운서뿐만 아니라 《經典釋文》, 《羣經辨音》, 《一切經音義》, 現代北京語 등을 같이 참고하고, 문헌마다 주음을 정리함으로써 문헌 간에 존재하는 다음자 구별 양상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3) 본고에서는 이들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자화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고성익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전자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한자음을 교정·입력한 것이다. 교정 작업을 위하여 필자는 전자입력자료를 실제문헌과 같은 레이아웃으로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고성익 선생님이 페이지 정보나 단락 정보에 관한 상세한 태그가 달려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긴 기간에 걸쳐서 정리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논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고성익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고에서는 자주 언급하는 문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약칭을 사용한다.

- | | | | |
|--------------|------|--------|------|
| (1) 《東國正韻》 | 《동국》 | 《釋譜詳節》 | 《석상》 |
| 《月印千江之曲》 | 《월천》 | 《月印釋譜》 | 《월석》 |
| 《楞嚴經諺解(木版本)》 | 《능목》 | 《廣韻》 | 《광운》 |
| 慧琳의 《一切經音義》 | 《음의》 | 《中原音韻》 | 《중원》 |
| 《古今韻會學要》 | 《운회》 | 《康熙字典》 | 《강희》 |

2. 문헌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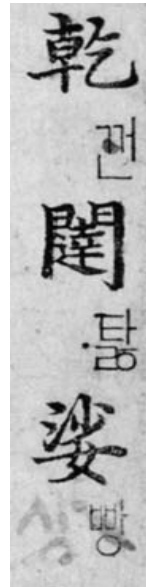
본고에서 자료로 사용하는 4가지 문헌에 대하여 개관한다.

2.1. 釋譜詳節

《釋譜詳節》은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世宗이 首陽大君에게 명하여 만들게 한 부처의 일대기이며, 1447년에 간행되었다.

《석상》 권6, 9, 13, 19에서는 오기·오각 등이 朱筆 혹은 黑筆로 改書되어 있다(안병희 1974/92: 43-56).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석상》의 개서 중에는 잘못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석상 13:32a》에서는 ‘乾(견)闍(·鬻)娑(뺑)’ 중 ‘娑’의 독음 ‘뺑’가 ‘상’로 개서되어 있다. 그러나 산스크리트 ‘gandharva’의 음역어는 乾闍婆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수정은 한자에 맞춰서 독음을 ‘뺑’에서 ‘상’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음에 맞춰서 한자를 ‘娑’에서 ‘婆’로 바꾸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黑筆로 기입된 개서가 안병희(1974/92)나 차익중(2014: 17-19)에서 보고된 것보



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안병희(1974/92)에서는 ‘鬼’의 독음 ‘·굉’를 ‘·굉’로 수정한 개서로 《석상 13:24b》와 《석상 13:26a》만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정은 이 외에도 7군데에서 발견된다. ‘轉’의 독음 ‘·똥’을 ‘·똥’으로 고친 개서의 경우 안병희(1974/92)에서는 아예 언급이 없고 차익중(2014)에서도 《석상 13:13b》 한 군데만 보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군데에서 발견된다. 본고의 조사 결과 권6, 9, 13, 19에 나타나는 ‘鬼’, ‘轉’ 주음 중에서 처음부터 2점으로 인쇄된 것은 한 글자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석상》의 편찬자들이 ‘鬼’, ‘轉’의 한자음을 ‘·굉’, ‘·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서가 전혀 가해지지 않은 권20, 21, 23, 24에서 ‘鬼, 轉’의 주음이 ‘·굉, ·똥’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오기·오각에 대한 수정과 한자음 주음 기준의 변화에 따른 수정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오기·오각이라고 하는 것은 《석상》의 주음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주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석상 6:14a》에서는 ‘童’의 독음 ‘똥’가 ‘똥’으로 수정되어 있다. 그러나 ‘똥’은 《석상》에 한 번 밖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에서 발견되는 11개의 ‘童’의 주음은 원래부터 ‘똥’이다. 따라서 《석상》 편찬자들은 원래 ‘童’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편찬 과정에서 ‘똥’로 잘못 주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化’는 ‘·황→·황’의 개서가 14개, 개서가 없는 ‘·황’가 22개 발견된다. 즉 인쇄 당시에는 모든 독음이 ‘·황’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석상》 편찬자들이 ‘化’의 한자음을 ‘·황’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익중(2014)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두 경우 모두 수정 후의 음을 《석상》의 문헌음으로 처리하였지만, 본고에서는 각 문헌의 편찬자가 의도했던 한자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수정 후의 독음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후자의 경우에는 수정 전의 독음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석상》 권6, 9, 13, 19에서 이루어진 개서는 대부분의 경우 《월석》에 반영되는데 예외도 있다. 예컨대 권13에 보이는 ‘塿上慢’에 대한 ‘쨍

→‘쌍’의 수정은 《월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능목》에서도 ‘쌍’으로 나타난다.

2.2. 月印千江之曲

《月印千江之曲》은 首陽大君이 만든 《釋譜詳節》을 보고 감탄한 世宗이 만든 운문 문헌이다. 간행연도는 《釋譜詳節》 간행 직후인 1447년으로 추정되어 있다.

《월천》의 한자음 표기형식은 다른 동국정운식 한자음 사용 문헌과 사뭇 다르다. 《월천》은 한자음을 먼저 대자로 표기하고 그 밑에 한자를 소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취했고, 중성이 없는 한자음을 고유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ㅇ’을 사용하지 않고 표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기법의 차이일 뿐이며, 표기된 한자음의 음가는 다른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병희(1991/92: 57-65)에 보고된 바와 같이 《월천》에는 補印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고유어 표기를 형태음운론적인 표기로 고친 것이며, 한자음에 대한 보인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본고의 관심 범위에서는 벗어난다.

2.3. 月印釋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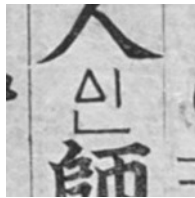
《月印釋譜》은 世宗 및 昭憲王后, 요절한 世子 桃園君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世祖가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을 합편하여 만든 책이며, 1459년에 간행되었다. 《釋譜詳節》 대응 부분에는 많은 개편이 가해졌지만 《月印千江之曲》 부분은 거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 결과, 한자음에 관해서는 《釋譜詳節》 부분과 《月印千江之曲》 부분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주음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석 序:18b》에는 ‘新’에 대한 주음으로 ‘신’이 보인다. 차익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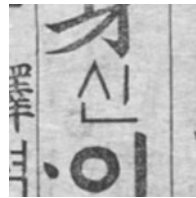
(2014: 20, 95)에서는 이것을 오각으로 보았으나 이 주음이 인쇄되었을 때부터 ‘신’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이 ‘신’은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만을 봐도 補筆의 흔적이 분명하다. 주위 부분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음이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아 누군가가 보필한 것으로 보인다. 《월석 序:18b》의 사진은 책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찍혔으므로 ‘신’ 부근은 오른쪽이 아래로 약간 쳐져 있지만, ‘△’의 밑의 획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약간 들려 있다. 《월석 序:6b》 등의 보이는 ‘신’에서는 ‘△’과 ‘ㄴ’의 밑의 획이 서로 병행인 것을 고려하면 이 ‘신’은 인쇄된 다른 ‘신’과 분명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문을 보기 전까지는 단언하지 못하지만 이 ‘신’은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서 희미해진 ‘신’을 누군가가 ‘신’으로 잘못 수정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각 문헌의 인쇄시의 주음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新(신)’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석 序:18b》



《월석 序:6b》



《월석 序:5b》

2.4. 楞嚴經諺解(木版本)

《楞嚴經諺解(木版本)》은 1464년에 간행된 《楞嚴經諺解(活字本)》을 이듬해인 1465년에 刊經都監에서 개수하여 다시 만든 개정본이다. 목판본은 활자본의 문장을 크게 바꾸지 않고 따랐으나 판을 새로 한 중간본이다.

차익중(2014)에서는 원간본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활자본을 연구 자

료로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刊經都監 성립 이전에 간행된 불교언해 문헌에 나타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刊經都監이 관여한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목판본을 사용한다.

차익중(2014: 20-21)에서는 목판본에서 ‘阿難’, ‘般若’의 주음으로 ‘훤난’, ‘뵤샹’가 쓰인다고 했지만 이는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 후쇄본의 특징이며, 본고에서 자료로 이용한 동국대 소장 초쇄본에는 없는 특징이라고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3. 표면적인 다음자

문헌에서 복수의 음으로 주음된 한자가 모두 다음자인 것은 아니다. 다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헌에서 복수의 음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기·오각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한자가 다른 한자의 通假字로 쓰였기 때문이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다음자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복수음’을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3.1. 오기·오각

오기·오각은 單音字의 주음에 나타나서 단음자를 표면적으로 다음자 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고, 多音字의 주음에 나타나서 음과 의미의 대응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기도 한다. 단 多音字에 나타나는 오기·오각은 해당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음의 대응관계를 주음자가 잘못 파악한 결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單音字에 나타나는 오기·오각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자에 나타나는 오기·오각에 대해서는 4.2. 및 5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음자에 나타나는 오기·오각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한 문헌에 나타나는 동일한 한자어에서 어떤 한자가 대부분 X로 주

음되는데 일부분에서만 Y로 주음되는 경우, Y는 오기·오각이라고 볼 수 있다.⁴⁾ 예컨대 《석상 6:5b》에는 ‘子(:중)息(·씩)’이라는 주음이 보이지만 《석상》에서 ‘子息’이라는 한자어는 10번 등장하고 《석상 6:5b》를 제외하고 모두 ‘子(:중)息(·씩)’으로 나타나므로 《석상 6:5b》의 ‘씩’은 분명한 오기·오각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문헌, 동일한 한자어라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동일한 문헌에서 소수의 주음이 의미구별 없이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의 문헌에서 다른 음이 규범음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주음의 근거를 중국에서 간행된 운서나 《동국》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오기·오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 한자에서는 출현빈도수가 1번뿐인 주음이 오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媿, 負’에 관해서는 오히려 빈도수가 높은 음이 오기·오각으로 판단된다.⁵⁾

다음자의 오기·오각을 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 (2)이다.

(2)

한자	오류 유형	문헌음		현실음 ⁶⁾	오류음 출현 문헌
		규범음	오류음		
息	초성	·식	·씩	·식	《석상 6:5b》(개서 있음)
河	초성	햡	햡	하	《석상 9:02b》(개서 있음)
隨	초성	쨡	쨡	슈	《석상 24:20a》
炎	초성	염	염	염	《월석 20:10b》
契	초성	·깡	·깡	:계	《월석 8:24a》

- 4) 4.2.에서 논하는 ‘多聞’처럼 구성이 동일하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한자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그 한자어가 정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媿’는 《능목》에만 3번 나타나는데 그 중 2번 나타나는 ‘·뿔’가 오류음으로 판단되며, ‘負’ 또한 《능목》에만 3번 나타나는데 그 중 2번 나타나는 ‘·뿡’가 오류음으로 판단되었다.

炮	초성	·뽕	·푼	포	《능목 4:028a》(x2)
婆	성조(평성→거성)	뽕	·뽕	바, (파)	《석상 19:21b》(개서 있음)
闍	성조(평성→거성)	쌩	·쌩	(없음)	《석상 24:7b》
淨	성조(거성→평성)	·정	정	:정, (·정)	《석상 21:34b》
印	성조(거성→평성)	·인	인	·인	《석상 20:34a》
數	성조(거성→상성)	·승	:승	:수	《석상 13:38a》(개서 있음)
餓	성조(거성→상성)	·앙	:앙	:아	《석상 9:12b》(개서 있음)
住	성조(거성→상성)	·똥	:똥	:뉘, ·뉘	《능목 10:61b》
童	중성	똥	똥	동	《석상 6:14a》(개서 있음)
優	중성	똥	똥	우	《석상 9:17b》(개서 있음)
迎	중성	영	연	영, (연;영,영)	《석상 6:15b》(개서 있음)
棼	초성 및 중성	·뽕	·뽕	(없음)	《능목 7:59b》
負	성조 및 중성	:뽕	·뽕	:부, ·부	《능목 2:87a》 《능목 4:31a》

오기·오각이 생기는 원인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글 자형의 유사성이다. ‘염’이 ‘염’으로 표기된 ‘炎’, 방점 1점이 무점으로 표기된 ‘淨, 印’, 중성 ‘이’ ‘똥’으로 표기된 ‘童’, 중성 ‘ㅏ’가 ‘ㅑ’로 표기된 ‘優’ 등은 자형의 유사성 때문에 생긴 오기·오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현실 한자음의 영향으로 인한 오기이다. 초성 중에서 ‘河, 隨, 炎, 契, 炮’는 오류음의 초성이 현실음과 일치

6) 현실한자음은 權仁瀚(2009)를 인용하였다. 괄호를 친 한자음은 그 한자음이 낮은 빈도로 문헌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이상 현실음 자료로 權仁瀚(2009)를 인용한다.

하기 때문에 현실음의 영향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息’도 과도교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數, 餓, 住, 負’는 현실음의 성조가 그대로 주음에 반영되어 있다. ‘負’에서 중성 ‘뫼’이 빠진 것 또한 이 중성이 현실한자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擘’는 중세 문헌에 나타나지 않아서 현실음을 알 수 없으나 현대음으로 ‘혜’로 읽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 ‘擘’의 독음에 이끌린 유추음 ‘혜’로 읽혔고 그것이 동국정운식 문헌음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迎’은 현실음 중에서도 예외적인 독음 ‘연’이 동국정운식 문헌음에 영향을 끼친 예로 볼 수 있다. ‘연’은 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음은 아니고 權仁瀚(2009)가 다룬 자료 중에서는 《眞言勸供諺解》에 한 번만 나타나는 음이다. 하지만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표기에까지 영향으로 끼칠 정도라면 ‘迎’을 ‘연’으로 읽는 습관은 당시 지식인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지금까지 우리는 ‘息, 河, 隧, 炎, 契, 炮, 數, 餓, 住, 迎, 擘, 負’의 12개 한자의 오류가 현실음의 영향으로 생긴 것으로 분석하였다.⁸⁾ 이들 중 현실음이 그대로 표기된 것은 ‘河’(하→향), ‘炎’(염→염), ‘數’(수→승) 3개뿐이고, 나머지는 규범음을 기본으로 하면서 초성, 중성, 성조 중 한 요소에서만 현실음을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주음자가 의도적으로 현실음을 적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현실음의 영향을 받아 규범음에 부분적으로 현실음적 요소가 유입되어버린 결과라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이제 남은 것은 ‘婆, 闍’ 2자이다. 둘 다 문헌 중에서 출현 부분 전후에 정확한 주음이 행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주음자의 음에 대한 착각

- 7) 權仁瀚(1997)에 따르면 《三國遺事》에 실린 讚詩 중에 庚韻의 ‘迎’이 仙韻의 ‘泉’, 先韻 ‘年’과 압운된 예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迎’의 독음 ‘연’이 장기간 동안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8) 차익중(2014: 93-4)에서도 ‘隧’에 대한 주음 ‘췘’을 현실음의 영향으로 보았다. 나머지 11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은 개서가 있어서 불일치음으로 간주하지 않았거나, 조사 대상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오류는 《석상》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伊藤智ゆき(2002)에 따르면 언해 문헌에서 방점 오각은 보통 점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석상》의 경우 각수들이 아직 언해문 판각에 익숙하지 않아서 작업 과정에서 묻은 먹 등을 방점으로 착각하고 점을 만들어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원인별로 각 문헌의 오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炎’은 자형 유사성으로도 현실음 영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0.5개로 계산하였다.

(3)

		《석상》	《월천》	《월석》	《능목》
자형 유사성		6 (淨印童優婆闍)	0	0.5 (炎)	0
현실음 영향	초성	3 (河隨息)	0	1.5 (炎契)	1 (甌)
	성조	2 (數餓)	0	0	2 (住負)
	기타	1 (迎)	0	0	1 (慧)

《월천》에서 전혀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문헌 양이 적기 때문이고, 문헌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월천》을 제외하고 보면 자형의 유사성에 의한 오류가 후기 문헌일수록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수가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새기는 데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현실한자음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월석》에서 한 번 줄어들었다가 《능목》에서 다시 많아진다. 특히 《능목》에서는 오류음이 규범음보다 많이 나타나는 예가 ‘負, 甌’ 2개나 보인다는 면에서 분명한 퇴보라고 할 수 있겠다.

3.2. 通假字

다음자가 아닌 한자가 복수의 음으로 주음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通假字가 있다. 한자를 표기할 때는 본래 써야 되는 한자 대신 독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자를 쓸 때가 있는데 이때 대신 쓰이는 한자를 통가자라고 한다. 本字의 독음과 통가자의 독음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통가자로 쓰인 한자에 달리는 표면적인 주음이 늘어나지 않지만, 本字의 독음과 통가자의 독음이 다른 경우 통가자로 쓰인 한자는 표면적으로 복수의 주음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正遍知’가 ‘正徧知’로 표기되는 것이 전자의 예이다. ‘遍’의 본래 독음은 ‘변’이며 ‘徧’의 독음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遍’의 통가자로 ‘徧’을 쓴다고 해서 ‘徧’의 표면적인 주음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표면적인 다음자를 진정한 다음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知’는 표면적으로는 ‘딩, ·딩’ 두 가지 주음으로 나타나지만 ‘知見, 眞知, 善知識’ 등 중에 쓰일 때는 항상 平聲 ‘딩’로 주음되며, 한자어 ‘知慧’ 중에 쓰이는 경우에 한하여 ‘·딩’로 주음된다. ‘知慧’는 원래 ‘智慧’로 표기되는 한자어이며, 여기서 ‘知’는 ‘智’에 대한 통가자로 쓰였기 때문에 ‘智’의 독음인 ‘·딩’로 주음된 것이다.

같은 현상이 ‘付囑’을 ‘付屬’으로, ‘洒落’을 ‘灑落’으로, ‘法螺’를 ‘法蠡’로, ‘謫’을 ‘適’으로 표기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통가자 사용 양상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다음 표이다.

(4)

단어	本字	通假字	通假字 본음
智慧	智(·딩)	知(·딩)	知(딩)
付囑	囑(·족)	屬(·족)	屬(·족)
洒落	洒(·생)	灑(·생)	灑(·생)
法螺	螺(랑)	蠡(랑)	蠡(·레)
謫	謫(·딕)	適(·딕)	適(·딕)

4. 주음이 일관적인 한자

4.1. 일관적인 단음자

네 문헌 전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한 음으로만 주음된 한자는 2309자에 달하며, 이는 총 2496자 중의 92%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자 중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순으로 30자만을 골라서 제시하기로 한다.

- (5) 法(·법) 王(왕) 世(·세) 生(싱) 一(·일) 佛(·불) 大(·대) 來(링)
 三(삼) 無(무) 羅(랑) 十(·십) 衆(·중) 阿(항) 菩(뿌) 中(둥)
 如(영) 天(턴) 子(·중) 薩(·삼) 得(·득) 百(·백) 能(능) 因(힌)
 道(·도) 妙(·묘) 心(심) 諸(정) 界(·계) 明(명)

이러한 한자 중에는 중고한어에서 복수음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문헌 중에서 그 복수음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한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한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지만 본고의 목적은 네 문헌에 나타나는 주음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자에 대한 조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 싶다.

한편 주음자들이 다음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에서 하나의 의미로만 쓰여서 하나의 주음으로만 나타나게 된 한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道’는 본고 자료에서는 ‘길’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며 그 주음은 항상 ‘·똥’이다.⁹⁾ 그런데 《蒙山法語諺解》에서 ‘道’는 ‘말하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道’는 ‘·똥’로 주음된다.¹⁰⁾ 《석상》 등의

9) 차이중(2014)에서 ‘道’가 복수 문헌음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法華經諺解》, 《南明集諺解》, 《靈驗略抄》에서도 ‘道’은 ‘길’의 뜻으로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10) ‘말하다’의 의미로 쓰인 ‘道’가 본고 조사 대상 자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蒙山法語諺解》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용법이 백화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음자 역시 ‘道’가 다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 《석상》 등에는 ‘말하다’를 의미하는 ‘道’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음으로 ‘·똥’을 달 기회가 없었을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4.2. 일관적인 다음자

네 문헌 전체를 통해서 늘 같은 기준에 따라서 복수음이 구별되는 한자는 다음 41자이다. 표 중에서 동그라미는 해당 문헌에서 그 한자가 그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해당 문헌에서 그 한자가 그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있지만 다른 독음과 대립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해당 문헌 내에서 해당 한자의 다른 독음과 대립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6)

한자	독음	의미 ¹⁾	용례	석상	월천	월석	능목
朝	똥	아침	朝夕, 晨朝	-	-	-	○
	똥	임금을 뵈다	朝集, 朝士	-	-	○	-
葉	·엽	잎	花葉, 枝葉, 千葉, 衣葉	-	-	◎	◎
		(음역1)	阿葉摩王	◎	-	-	-
	·섭	(음역2)	迦葉, 迦葉波, 葉波國	◎	○	◎	◎
應	똥	마땅히	應供, 應眞	◎	-	◎ ¹²⁾	◎
		응하다	隨應, 感應, 報應, 相應	◎	-	◎	◎
	·똥	부처가 나타나다	應身, 三十二應	◎	-	◎	◎
相	상	서로	相考, 相逢	-	-	◎	◎
	·상	모습	實相, 三十二相, 相貌	○	○	◎	◎
		똥다, 똥는 사람	宰相, 相師	○	○	◎	-
難	난	어렵다	艱難, 難行	◎	○	◎	◎
		(음역)	阿難, 難陀, 阿難陀	◎	-	◎	◎
	·난	어려운 일	苦難, 災難, 厄難, 八難	◎	-	◎	◎
	따져 묻다	詰難, 問難	-	-	◎	◎	

便	·뻬	편하다	便安, 便利	◎	◎	◎	◎
		대소변	大小便	-	-	◎	◎
縱	·종	방법	方便, 方便品, 方便力	◎	◎	◎	◎
		남북	縱廣	-	-	◎	○
藏	·장	비록	萬幾縱浩	-	-	◎	-
		보관하다	德藏菩薩	◎	-	◎	-
傳	·똥	불교 '藏'	三藏, 經藏, 法藏, 律藏	◎	-	◎	○
		전하다	傳持, 傳送, 傳傳	-	○	◎	◎
唯	·윙	전해진 이야기	感通傳, 阿育王傳	-	-	◎	◎
		오로지	唯心識	-	-	-	◎
冠	·관	긍정하다	唯然	-	-	○	◎
		(머리에 쓰는)관	天冠, 寶冠	○	○	○	-
緣	·원	우두머리	冠	-	-	-	○
		원인, 원인이 되다	因緣, 緣覺, 十二緣, 緣起	○	○	◎	○
疏	·송	옷자락	緣	-	-	◎	-
		통과하다	疏達	-	-	○	-
頗	·광	해석하다	疏釋	-	-	-	○
		(음역1)	頗梨, 頗羅墮	◎	○	○	◎
		(음역2)	遮頗國	◎	-	-	-
聞	·문	자못	頗	-	-	-	◎
		듣다	聲聞, 多聞, 見聞, 我聞	◎	-	◎	○
幾	·기	들리다, 소문	名聞, 多聞, 凶聞	◎	-	◎	-
		조각	幾微	-	-	○	○
上	·쌍	얼마	幾千萬	-	○	-	-
		위로 올리다	進上	-	-	◎	◎
處	·청	위	無上, 天上, 上座	○	○	◎	◎
		자리에 있다	處女, 處身	-	-	◎	◎
假	·강	장소	善男子處, 處所, 定處	○	○	◎	◎
		가짜	假名言相, 假眞如	-	-	◎	◎
少	·훤	비어 있음	假借, 假行, 假觀	○	-	◎	◎
		적다	少病, 少惱, 少光, 少淨	-	-	○	○
爲	·윙	짧다	少時	-	○	-	-
		하다	有爲, 無爲, 云爲, 施爲	-	-	◎	◎

		되다	轉女爲男	-	○	○	-
		-이다	爲頭, 爲三界之尊	○	-	○	○
	·윙	위하다	爲	○	○	○	○
出	·출	나다, 나가다	出家, 出世, 出定, 出生	○	○	○	○
	·형	내다	出令	○	○	○	-
長	땅	길다	長常, 長夜, 長壽, 長命	○	-	○	○
	:당	우두머리	長者, 長老, 師長, 長子	○	○	○	○
		자라다	生長	-	-	-	○
若	·약	몇	若干	○	-	○	-
		~와 같다	若一日, 若生若滅	-	-	○	○
	:상	(음역)	般若, 阿蘭若	○	-	○	○
樂	·락	즐겁다	極樂, 安樂, 快樂	○	○	○	○
	·악	음악	伎樂, 天樂, 樂音	○	○	○	-
	·홀	좋아하다	樂說, 樂見, 愛樂	○	-	○	○
乾	견	하늘, 서북	乾道	-	-	○	-
		(음역)	乾闥婆, 那乾訶羅	○	○	○	○
	간	마르다	乾慧, 乾城	○	-	○	○
家	강	집	出家, 理家, 怨家,	○	○	○	○
		무리	道家, 佛家	○	-	○	○
	공	여성의 경칭	大家	-	-	○	○
度	·똥	건너다, 건네다	滅度, 得度, 濟度, 度脫	○	-	○	○
		수행	六度, 諸度, 誓願度	○	-	○	○
		(음역)	勞度差, 印度	○	○	○	-
·막	재다	量度, 比度	-	-	○	-	
畜	·홀	동물	畜生, 畜獸, 鬼畜	○	-	○	○
	·홀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다	畜	-	-	-	○
車	경	수레	羊車, 鹿車, 牛車, 車兵	○	-	○	○
		(음역)	車匿	○	○	-	-
	창	차	妙車龍王	-	-	○	-
索	·식	찾다	求索	-	-	○	-
	·삭	줄	持大綱索龍王	-	-	○	-
反	:번	돌아가다	反入, 反還, 反本還源	-	-	○	-

	·반	거스르다	反ᄃᆞ다	-	-	◎	-
焉	연	어찌(반어)	焉有去來	-	-	◎	-
	언	(종말사)	而歸依三寶焉	-	-	◎	-
麗	·렝	곱다	端麗	-	-	◎	-
	링	(지명)	高麗	-	-	◎	-
		(음역)	柳哩麗耶	-	-	◎	-
降	·강	내리다	降雨龍王, 降雪龍王	-	-	◎	-
	향	항복하다	降服, 降化	○	○	◎	○
復	·복	다시하다, 돌아가다	旋復, 消復, 平復	-	-	◎	◎ ¹³⁾
	·뵙	다시	復然	-	-	◎	◎
比	·빙	비교하다	無比身, 比量, 比度	◎	◎	◎	◎
	·뵙	(음역1)	比丘, 比丘尼	◎	◎	◎	◎
	뵙	(음역2)	比提希國	-	-	◎	-
宿	·숙	머무르다	宿命, 宿世, 宿主	◎	-	◎	○
	·슉	별자리	星宿, 日星宿, 善宿比丘	◎	-	◎	-
去	·경	떠나다	過去, 去來相, 去來住	○	○	◎	○
	:경	떠나게 하다	去取	-	-	◎	-
切	·챙	모두	一切	○	-	◎	◎
	·츨	시급하다	切忌執指	-	-	◎	-
		베다	禁切	-	-	-	◎
勞	·룻	일하다, 고생	侵勞, 塵勞, 塵勞萬法	-	-	◎	◎
		(음역)	勞度差	◎ ¹⁴⁾	◎	-	-
	·룻	위로하다	慰勞	◎ ¹⁵⁾	◎	◎	◎

11) 각 독음에 대응하는 의미는 문헌에 실제로 나타나는 의미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문헌에서 한정된 의미로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어학 입장에서 그 독음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 독음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칸을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12) 《석상 9:3a》에 보이는 ‘應(·홍)供(공)’은 ‘應(홍)供(공)’의 오기·오각으로 보인다.

13) 《월석》 중에서 ‘復ᄃᆞ다, 旋復, 消復’에 ‘·복’, ‘平復’에 ‘·복’이 쓰이는 것만을 보

위 41자 중에서 차익종(2014)에서 언급된 한자는 ‘朝, 葉, 相, 難, 便, 縱, 傳, 疏, 處, 爲, 出, 長, 乾, 車, 降, 比, 宿, 去, 切’ 19자이며 모두 다음자로 간주되어 있다.¹⁶⁾ 이들 다음자에서 관찰되는 독음과 의미의 대응 관계는 대부분 《광운》을 비롯한 운서와 일치한다. 다만 ‘畜’은 ‘동물’의 의미로는 ‘·흙’,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다’의 의미로는 ‘·혹’으로 읽히는데 전자는 운서에 따르면 ‘·툭’이 예상되는 의미고, 후자는 운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의미이다. ‘畜’의 의미 구별 양상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 싶다.

‘多聞’은 같은 구성을 가지는 한자어가 의미에 따라 달리 주음된다는 면에서 흥미롭다. ‘多聞’은 ‘많이 듣다’라는 의미일 때는 ‘多(당)聞(문)’으로 표기된다. 阿難의 존칭 ‘多聞第一’이나 경전을 많이 듣는다는 의미의 ‘多聞’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多聞’이 ‘이름이 잘 들리는(=유명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多(당)聞(·문)’으로 주음된다. 四天王 중 한 명인 ‘多聞天’의 ‘多聞’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多聞天’은 원어로 ‘Vaiśravaṇa’(Skt.)이며 원래 ‘Viśravas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이름이 잘 들리는 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多聞天’으로 의역된 것이다.¹⁷⁾ 동일하게 표기되는 한자어를 의미에 따라 다른 음으로 주음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주음자들에 음운학과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면 어휘에 따라 독음을 달리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 한자어에서 ‘復’은 모두 ‘돌아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뿍’이 모두 권19에, ‘·복’이 모두 권17에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복’은 권17의 주음자가 현실음 ‘·복’의 영향으로 잘못 표시한 주음으로 보인다.

- 14) 《석상》에서 6번 나타나는 ‘勞度差’의 ‘勞’는 모두 ‘룽’로 주음되고, ‘룽’로 개서되어 있다. 이 오류는 《월천》에서는 바로잡혔다.
- 15) 《석상》에서 1번 나타나는 ‘慰勞’의 ‘勞’는 모두 ‘룽’로 주음되어 있다. 이 오류는 《월천》에서는 바로잡혔다.
- 16) ‘應, 頗, 聞, 少, 樂, 度, 焉’ 7자는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부록(pp.223-72)에서 복수음이 실려 있다.
- 17) 《월석 1:30b》에는 ‘多聞天王’에 대한 주석으로 ‘多(당)聞(·문)’은 만히 들일 씨니라는 뜻풀이가 있으며 《월석》의 편찬자들이 ‘多聞天’의 ‘多聞’을 ‘많이 들리다’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음역어의 복수음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불교 관련 음역어에 사용되는 한자의 대부분은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오로지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음자들이 음역어 중에 사용되는 다음자에 주음을 달 때에는 운서가 아니라 승려들이 구전으로 알고 있는 독음이나 佛經音義書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6)의 표를 보면 ‘難, 若, 樂, 乾, 度, 車, 載, 麗’와 같은 대부분 다음자는 음역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음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의 독음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음역어 독음이 꼭 대표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若(:상), 乾(견), 車(창)’처럼 사용빈도가 낮은 독음으로 읽는 경우도 있었다.¹⁸⁾

음역어 중의 독음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자로는 ‘葉, 頗, 比’가 있다. ‘葉’은 姓氏 ‘Kaśyapa’의 음역어인 ‘迦(강)葉(·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음독자로는 ‘섭’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월석 2:3b》에 나타나는 ‘阿(항)葉(·엽)摩(망)王(왕)’에서는 ‘엽’으로 읽히고 있다. ‘阿葉摩王’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알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독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다. 《석상》의 底經 중의 하나인 《釋迦譜》에 “阿葉摩王有七轉輪聖王(律云阿濕卑七王. 樓炭數同)”이라는 주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阿葉摩’와 ‘阿濕卑’를 같은 인명에 대한 음역어로 본다면 ‘葉’은 ‘濕’과 비슷한 발음 즉 ‘섭’으로 읽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阿葉摩王’의 ‘葉’이 ‘엽’으로 주음된 이유는 《월석》의 주음자가 ‘阿葉摩王’의 ‘葉’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몰라서 일반적인 독음을 단 결과로 보인다.

‘頗’는 ‘頗梨’(Skt. sphaṭikā, ‘水晶’), ‘頗羅墮’(Skt. Bhāradvāja, ‘姓氏의 하나’) 등 대부분 음역어에서 ‘팡’로 읽히지만 《석상 23:52b》 및 《석상 23:55a》에 나타나는 ‘遮頗國’에서는 ‘팡’로 읽힌다. 이도 ‘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음자에게 독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반적인 독음

18) 현대어로 ‘車’의 일반적인 독음은 ‘차’이지만 중세어 문헌에서 일반적인 독음은 ‘거’이다.

으로 읽은 결과로 보인다.

‘比’는 ‘比丘’(Pli. bhikku), ‘比丘尼’(Pli. bhikkhuni)에서는 ‘:뺑’로 주음 되지만 《월석 7:14b》 및 《월석 7:15a》에 나타나는 ‘比提希國’(Skt. Videha)에서는 ‘뺑’로 주음되어 있다. ‘葉’이나 ‘顛’의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인 주음일 수도 있으나 그 전고는 분명하지 않다.

5. 주음의 변화

이 장에서는 문헌마다 주음 양상이 상이한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 한자에 대한 주음이 문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오류음인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광운》, 《강희》, 《음의》 등을 참고하여 규범음과 오류음을 가려냈다.

5.1. 단독음의 변화

각 문헌 중에서 독음이 통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통일된 음이 문헌마다 다른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한자는 조사 대상 문헌에서 35자가 발견되었다.

① 독음이 후기 문헌에서 수정된 한자

문헌마다 독음이 다른 한자 중에서 잘못된 전기 문헌의 독음이 후기 문헌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한자는 25자가 있다. 다음 표는 그 한자를 정리한 것이다. 《석상》에 관해서는 인쇄되어 있는 주음과 개서의 주음을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석상 개서’를 《월천》보다 뒤에 둔 이유는 개서의 내용이 《월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서 작업이 《월천》 간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운서 및 음의서를 기준으로 할 때 잘못된 주음으로 생각되는 음은 배경을 어둡게 해서 표시하였다.¹⁹⁾

(7)

	변화 방향	유형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현실음
奇	·깡→·깡	초성	·깡	-	·깡	·깡	·깡	기
鈍	·툰→·툰	초성	·툰	-	·툰	·툰	·툰	:둔
貧	·빈→·뵤	초성	·빈	-	-	·뵤	-	빈, (빙)
背	·빙→·뵤	초성	·빙	-	-	·빙, ·뵤	·뵤	:비, (:피)
昭	·쑤→·쑤	초성	-	·쑤	-	·쑤	·쑤	쇼
辯	:변→:뵤	초성	:변	-	-	:변 ²⁰⁾	:뵤 ²¹⁾	변
玻	·뵤→·괩	초성	·뵤	-	-	·괩	-	파
墮	:뵤→:괩	초성	:뵤	-	-	-	:괩	:타, 타
化	:황→:황	성조	:황	·화	·황	·황	·황	:화, (:화)
鬼	·깡→:깡	성조	:깡	:귀	:깡	:깡	:깡	:귀
最	:징→:징	성조	:징	-	·징	·징	·징	:최, (:최)
號	·홍→:홍	성조	:홍	-	-	:홍	-	:호
段	·뵤→:뵤	성조	:뵤	-	-	·뵤	·뵤	:단, 단
累	:뵤→:뵤	성조	:뵤	-	-	·뵤	·뵤	-
素	:송→:송	성조	:송	-	-	·송	-	:소, (:조)
要	·뵤→:뵤	성조	:뵤	-	-	·뵤	·뵤	:요, 요 (:요)
捷	:견→:견	성조	:견	:견	-	견	-	견
在	·징→:징	성조	:징	·적 ²²⁾	-	:징	:징	:지, (:지)

19) 다른 표에서도 어두운 배경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蘊	·훈→:훈	성조	·훈	-	-	·훈	:훈	:운
染	:염→:염	성조	-	-	-	:염	·염	:염(:염)
酉	:유→:유	중성	:유	-	:유	-	-	:유
鬪	·등→:등	중성	·등	-	-	·등	-	·투(:투)
富	·부→:부	중성	·부	-	-	·부 ²³⁾	·부	
婦	·부→:부	중성, 성조	·부	-	-	·부	-	·부(:부)
部	:부→:부→: 부	중성, 중성	:부	:부	:부	:부	:부	·부

차익중(2014)에서는 이 25자 중 9자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²⁴⁾ 그 중에서 규범음과 오류음의 판단이 본고와 일치하는 것이 ‘奇, 貧, 化, 瓠, 部’ 5자, 상반되는 것이 ‘墮’ 1자, 특별히 규범음과 오류음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 ‘背, 在, 蘊’이다. 본고와 차익중(2014) 사이에서 의견이 상반되는 ‘墮’에 대해서만 근거를 제시하기로 한다.

차익중(2014: 138-9)에서는 ‘墮’의 두 가지 주음 중 《法華經諺解》에 나타나는 ‘:똥’을 ‘특이한 음’으로 보고, 《法華經諺解》에서 ‘土’가 일반적인 ‘:통’가 아니라 ‘:똥’로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거기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墮’는 ‘頗羅墮’(Skt. Bharadvaja)라는 음역된 인명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음을 규범음으로 삼아야 할지

20) ‘뺨’이 한 번 나타나지만 예외로 보인다.
 21) ‘뵤’이 ‘微(딩)心(심)辯(:뵤)見(:견)’ 한 번 나타난다. 다른 데에서는 ‘懲(딩)心(심)辯(:뵤)見(: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수로 보인다.
 22) 차익중(2014: 116, 166, 256)에서는 ‘他化自在天’《월천 上:31b》의 ‘在’가 ‘똥’로 주음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국가기록유산 사이트 공개 사진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3) ‘富沙’에서 1번 ‘·부’가 나타나지만 예외로 처리한다. 《월석》에서 ‘富’의 전체 출현 횟수는 16번이며 모두 음역자로 쓰인다.
 24) ‘昭, 辯’ 2자는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부록(pp.223-72)에서는 복수음이 실려 있다.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楞嚴經諺解》과 《法華經諺解》에서 같은 음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이 독음은 불교학적으로 올바른 음일 가능성이 높고, 《석상》에서 쓰이는 ‘:똥’는 현실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똥’를 규범음으로 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오류음은 현실음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성에서 차이가 나는 8자 중 ‘奇, 貧, 背, 昭, 辯, 墮’ 6자, 성조에서 차이가 나는 12자 중 ‘婦, 化, 最, 素, 蘊, 染’ 5자, 중성에서 차이가 나는 ‘部’(《석상》)는 잘못된 독음과 현실음이 초성, 성조, 중성에서 각각 일치하며, 중성 ‘:똥’ 관련 오류인 ‘富, 婦, 鬪, 酉’도 ‘:똥’를 가지지 않는 현실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교정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초성에서 차이가 나는 ‘鈍, 玻’, 중성에서 차이가 나는 ‘部’(《월석》), 성조에서 차이가 나는 ‘鬼, 瓠, 在’까지 현실음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25자 중 ‘段, 累, 要, 捷’을 제외한 21자가 현실한자음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셈이다.

3.1.에서 살펴본 산발적 오류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음이 그대로 주음된 것은 ‘奇’(기→긔), ‘貧’(빈→빈), ‘化’(화→:똥), ‘素’(소→:송), ‘酉’(유→:용) 5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16자는 모두 분절음이나 성조에서 부분적으로 현실음의 영향을 받은 규범음이다. 차익중(2014: 103-4)에서는 ‘巍’의 주음 ‘:똥’에 대해서 ‘적어도 운모에서는 의식적으로 讚佛 讀誦의 전통음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불교적인 독음이라고 해도 현실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국정운의 창제 정신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설령 어떠한 이유로 현실음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반영시키지 않고 모음만을 반영시키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든 현실음의 영향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본다.

오류의 대부분이 현실음의 영향이라고 본다면 초성에 오류가 나타난 ‘奇, 貧, 背, 昭, 辯, 鈍, 玻’ 중에 순음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도 이해가 된다. 중고음의 성모와 중세 현실음의 초성은 규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河野六郎(1968)에 따르면 특히 순음에서 그 혼란이 심하기 때문이다. 성조에서 차이가 나는 12자 중 上-去 대립의

혼란이 10개(83%)에 달하는 것 또한 중고음의 상성과 거성의 대립이 현실음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현실음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음자 중에는 근고한어의 영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 ‘在’는 全濁上聲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근고음에서 全清去聲으로 변해 있었다. ‘在’가 기본적인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목》까지 수정되지 않고 계속 거성으로 주음되었던 것은 현실음뿐만 아니라 근고음에서도 거성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在’와 같이 중고음에서 全濁上聲에 속했다가 근고음에서 全清去聲으로 변하는 ‘婦’도 《석상》에서 거성으로 주음되었는데 이 또한 같은 이유에서 일어난 오류로 볼 수 있다.²⁵⁾

중성 ‘ᄃ’의 혼란에 관해서도 근고음의 간접적인 영향이 보인다. ‘ᄃ’ 관련 오류를 보이는 5개 한자 중 ‘富, 婦, 部’ 3개는 모두 성모가 脣音이다. ‘富, 婦’는 중고음으로는 流攝에 속하며 운미로 /-w/를 가졌으나 근고음이 되면서 운미가 운복과 융합하여 /u/로 변했다. 따라서 근고음 ‘富/fu/, 婦/fu/’만을 보면 遇攝에 기원이 있는 한자인지 流攝에 기원이 있는 한자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部’의 오류도 이 현상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ᄃ’ 관련 오류는 모두 脣音流攝이 遇攝과 합류한 근고음과 관련이 있는 셈이다. 이는 주음자들이 근고음을 참고하였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이미 3.1.에서 본 바와 같이 ‘負’는 《능목》에서 3번 중 2번 오류음 ‘ᄃ’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負’가 중고음에서 流攝에 속했다가 근고음에서 遇攝으로 합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익중(2014: 23, 105)에 따르면 《南明集諺解》에서는 遇攝 遇韻字인 ‘霧’가 ‘ᄃ’로 주음된다고 하는데 이도 근고

25) ‘在’와 ‘婦’의 수정 시기의 차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의 사용빈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婦’는 중국어는 물론 한국어 한자어 속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이다. 그에 비해서 ‘在’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있다’를 의미하는 사용빈도가 아주 높은 기본적인 형태소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에서만큼 기본적이지 않다. 따라서 주음자도 ‘在’의 독음에 관해서는 현실한자음보다 근고한어음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현실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段, 累, 要, 捷’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段, 累, 要’는 잘못된 독음이 《석상》에만 나타나는데 그 출현수가 ‘段(뎨)’ 1번, ‘累(:똥)’ 2번, ‘要(똥)’ 2번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한 오기·오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석상》은 다른 문헌에 비해서 오각이 많은 문헌이기 때문이다.

‘捷’은 신라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한반도 특유의 한자독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南豐鉉(2003)에 따르면 《妙法蓮華經釋文》 중에 ‘捷’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절이 있다고 한다.

(8) 大目…捷 渠焉反. 順憬云 居隱反.

《妙法蓮華經釋文》은 일본 승려 中算이 저술한 책이지만 그 중에는 신라 승려 順憬의 반절이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8)은 부처의 弟子 ‘大目捷連’에 대한 주음인데 여기서 ‘居隱反’이라는 順憬의 반절이 인용되어 있다.

《석상》 및 《월석》에 나타나는 ‘捷(:꺠)’은 모두 ‘(大)目捷連’ 중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단어에서 쓰인 셈이다. 順憬의 반절 ‘居隱反’이 나타내는 음은 운서나 음의서에 보이는 ‘捷’의 일반적인 음과는 전혀 다른 음이기 때문에 신라 고유의 한자음인 것으로 해석된다. ‘居隱反’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변환하면 ‘:꺠’이 되는데 이는 《석상》, 《월석》에 나타나는 ‘꺠’과 성조 면에서 일치한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현실음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반영되는 경우 현실음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보다 분절음이나 성조 일부분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향을 고려하면 ‘꺠’은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한국식 한자음 ‘:꺠’의 영향으로 생긴 주음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후기 문헌에서 오류음이 나타나는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주음은 문헌 시기가 늦어질수록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부 한자들은 이른 시기 문헌에서 정확하게 주음되었다가 늦은 시기 문헌에서 오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한자로는 ‘𣎵, 卯, 屬, 夭, 繞, 被’가 있다.

(9)

	변화 방향	유형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현실음
𣎵	:뿡→:뿡	초성	:뿡	-	-	:뿡	:뿡	:류, :췌
卯	:뿡→:뿡	중성	:뿡	-	-	:뿡	-	:묘
屬	:찬→:찬	중성	:찬	-	-	:찬	:찬	:찬
夭	:뿡→:뿡	성조	-	-	-	:뿡	뿡	요, :요
繞	:슌→:슌	성조	:슌	-	-	:슌	:슌	:쇼
被	:뿡→:뿡	성조	:뿡	-	-	:뿡, 뿡	:뿡	:피

차익중(2014)에서는 6자 중 ‘卯’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차익중(2014: 110-1)에서는 《월석》에 不一致音 ‘:뿡’가 쓰이는 원인으로 현실음의 영향과 동국정음식 한자음이 가지는 效攝 二等的 특징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가능성은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음자들이 한자의 독음을 성모, 등, 개합, 성모, 성조와 같은 음운학적인 자질의 집합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한자를 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卯’의 주음 ‘:뿡’을 현실음의 영향으로 본다.

위 6자 중 현실한자음의 영향으로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卯, 夭, 被’ 3자이며, 과도교정을 가정하면 ‘繞’도 포함된다. ‘𣎵’도 현실음 ‘:류’의 영향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紐’나 ‘紐’의 발음에 이끌린 유추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ㄸ’의 오류는 현실음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고한어 영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ㄸ’는 중고음에서는 두 가지 독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초목이 번성한 모습’을 의미할 때는 평성, ‘끓어서 죽다’를 의미할 때는 거성을 취했다. 그러나 현대북경어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만 쓰이고, 독음은 평성이다. 이는 ‘ㄸ’가 의미와 상관없이 평성으로 읽히는 음의 합류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초목이 번성한 모습’이라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4세기에 편찬된 《중원》에는 ‘ㄸ’가 평성과 거성 두 가지 독음을 가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구어에서는 이미 합류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구어 근고음의 영향을 받아서 《석상》 주음자가 ‘ㄸ’를 평성으로 잘못 주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羸’의 오류음 ‘·촨’은 근고음의 두자음 /tʂh/의 권설음을 원순성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상정해왔던 근고음의 영향이 간접적인 것이었던 데에 비해 이러한 영향은 아주 직접적인 것이다. 그러나 《능목》에서 이 음이 쓰인 단어가 ‘羸提’(Skt. Kṣānti)라는 음역어라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羸’이 僻字이며, 성부로 음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도 근고음의 영향을 받는 원인을 작용하였을 것이다. 차익중(2014: 90-1)에서는 《法華經諺解》에 나타나는 知聲字 ‘吒’의 주음 ‘·장’을 《古今韻會舉要》의 성모를 따른 결과로 보았지만 그 원인을 꼭 《古今韻會舉要》로 볼 필요는 없고 더 일반화시켜서 근고음으로 볼 수도 있다. ‘吒’는 ‘阿迦尼吒’(Skt. Akanistha)라는 음역어에서 쓰인다는 점과 성부로 독음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羸’과 유사하다.

③ 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음이 나타나는 경우

‘諍’은 《석상》에서 틀린 주음을 《월석》에서 고쳤다가 《능목》에서 다시 틀린 특이한 예이다.

(10)

	변화 방향	유형	석상	월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현실음
諍	·징→징→징	성조	·징	-	-	징	·징	:징

여러 운서와 음의서를 종합해서 볼 때 ‘諍’의 원래 의미는 ‘충고하여 말리다’이며 그 독음은 ‘·징’에 해당하는 음이다. 이 한자가 ‘말로 다투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징’에 해당하는 음으로 읽히는데 이는 평성으로 읽히는 ‘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가지 문헌에서 ‘諍’은 ‘諍訟, 鬪諍, 諍論’ 등 모두 ‘다투다’의 의미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징’으로 읽어야 한다. 평성으로 주음되어야 하는 ‘諍’이 《석상》 및 《능목》에서 거성으로 주음된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음자들이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한자만을 보고 ‘諍’의 독음을 달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실한자음 ‘·징’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근고한어음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 ‘諍’은 현대북경어에서 ‘충고하여 말리다’ 뜻으로도 ‘다투다’ 뜻으로도 거성으로 읽히는데 《중원》에 거성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음의 통합은 14세기에는 이미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④ 주음의 正誤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

본고에서 참조한 운서와 음의서만으로는 주음의 정오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11)

	변화 방향	유형	석상	월척	석상 개서	월척	능목	현실음
聚	:쫙→쫘	성조	:쫘	-	-	·쫘	·쫘	:쫘
湛	:땀→땀	성조	-	-	-	:땀	·땀	땀
轉	·똥→·똥	성조	·똥	·똥	:똥	:똥 ²⁶⁾	:똥	:똥, ·똥

‘聚’는 《광운》에 ‘:쫙’과 ‘·쫘’에 해당하는 반절이 기재되어 있는데, ‘:쫘’는 ‘衆也 共也 斂也’로 설명되어 있고 거성음은 字意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일단 상성 ‘:쫘’를 기본적인 음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차익중(2014: 165-6)와 일치한다. 그런데 《음의》에서는 ‘聚沫, 貯聚, 聚落, 屯聚’가 거성으로 주음되어 있다. 특히 ‘聚落’은 《월척》, 《능목》에 실제로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음은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느 쪽이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석상》의 주음이 운서를 따른 결과며 《월척》 및 《능목》의 주음이 음의서를 따른 결과라는 것은 확실하다.

‘湛’에 주음된 ‘:땀, ·땀’ 중에서 《광운》에 실려 있는 것은 거성뿐이며, 그 의미는 ‘水兒 又沒也 安也’이다. 문헌에서는 ‘湛寂, 湛明, 湛了, 圓湛, 湛然’와 같이 ‘땀다’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의미가 통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음의》에서는 玄應의 반절로 ‘湛然’이 거성으로, 慧琳의 반절로 ‘圓湛’이 상성으로 주음되어 있다. 따라서 《월척》의 주음은 玄應을, 《능목》의 주음은 慧琳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음의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익중(2014: 179-80)에서는 《석상》에서 혼동되어 있었던 ‘轉’의 독음이 《월척》에서 모두 ‘:똥’으로 바로 잡혔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반대이다. 2.1.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석상》의 ‘轉’은 인쇄되었을 때 모두 ‘·똥’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월척》의 ‘轉’은 대부분(130자 중 127자) ‘:똥’으로 나타나지만 차익중(2014)에서는 다루지 않은

26) ‘:똥’은 권19에서 3번 나타난다.

권19에서 3번 ‘·뉘’으로 주음되어 있다. 《운회 22:6a》에서는 ‘轉’의 독음과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 ‘凡物自轉則上聲 以力轉物則去聲’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중고한어에서 ‘轉’의 복수음이 態(voice)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석상》에서 일어난 ‘·뉘→·뉘’의 개서는 ‘像法이 轉홍’《석상 9:2a》과 같은 자동사적 용법뿐만 아니라 ‘轉法’《석상 6:18a》와 같은 타동사적 용법도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석상》의 개서를 단 사람이 복수음 기준을 의식하면서 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월석》에서 3번 쓰인 ‘·뉘’은 모두 타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으므로 ‘轉’의 복수음 기준과 일치하지만, ‘法輪을 轉(:뉘)호야’《월석 23:40b》처럼 타동사적인 용법에 ‘·뉘’이 주음된 예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미구별을 의식한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월석》에 3번 나타나는 ‘·뉘’은 단순한 오기·오각이거나 《석상》의 성조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결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轉’의 자음이 복수음과 상관없이 바뀐 것으로 보되 본래 복수음을 가지는 한자이니만큼 어느 쪽을 규범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5.2. 단독음에서 복수음로 변화

여기서는 이른 시기 문헌에서 의미와 상관없이 단독음으로 주음되었던 한자가 나중 문헌에서 의미에 따라 여러 음으로 주음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한다. 음역어와 관련된 다음자는 독음과 의미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음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논하기로 한다.

5.2.1. 일반적인 단→복수음 변화

먼저 음역어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복수음화 현상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이른 시기 문헌에서 없었던 복수음 구별이 생긴 한자로는 다음 12자가 있다.

(12)

	의미	용례	유형	석상	월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別	알다	分別	초성	·별	·별	-	·별	·별	bie2
	헤어지다	離別		·별	·별	-	·별	-	
	다르다	各別		·별	·별	-	·별	·별	
強	세다	強壯	平-上	-	-	-	강, (·강)	강	qiang2
	노력하다	強記		-	-	-	·강	:강	qiang3
論	논하다	論議	平-去	·론	론	론	론	론	lun4
	논해진 내용	智度論		·론	-	·론	·론	·론	
將	가지다	將護	平-去	-	-	-	장	-	jiang1
	곧	將來		-	-	-	장	장	
	장수	將軍		장	-	·장	·장	·장	jiang4
量	재다	量度	平-去	-	-	-	량	-	liang2
	생각하다	思量		·량	-	-	량	량	
	재는 수양	無量		·량	·량	-	·량	·량	liang4
施	하다	施無畏	平-去	싱	시	-	싱	싱	shi1
	주다	布施		싱	시	-	싱	·싱	
橫	비뚤다	橫邪	平-去	횡	-	-	횡	횡	heng2
	예기치 못한	橫死		횡	-	-	횡	·횡	heng4
近	가깝다	遠近	上-去	-	-	-	:근	:근	jin4
	가까운 사이다	親近		:근	:근	·근	·근	·근	
靜	움직이지 않다	動靜	上-去	-	-	-	:정	:정	jing4
	조용하다	寂靜		:정	-	-	·정 ²⁷⁾	·정	

下	아래	天下	上-去	:향	:하	-	:향	:향	xia4
	아래로 내리다	下直		:향	-	-	:향	:향	
坐	앉다	坐禪	上-去	:짱	-	-	:짱	:짱	zuo4
	앉는 자리(=座)	坐		-	-	-	:짱	-	
	(가부좌)	跏趺坐		:짱	:좌	-	:짱	:짱	
斷	끊다	斷滅	上-去 초성	:뎀	-	-	:뎀	:뎀	duan4
	끊기다	斷見		-	-	-	:뎀	:뎀	
	정하다	決斷		-	-	-	:뎀	:뎀	

12자 중 ‘別, 強, 論, 將, 施, 近, 坐, 斷’ 8자가 차익중(2014)에서 논의되었고 그 중 ‘別, 將, 坐, 斷’ 4자에 관해서 문헌마다 복수음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將, 坐’에 대한 분석은 본고와 일치하지만, ‘別, 斷’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차익중(2014: 139-41)에서는 ‘別’이 ‘헤어지다’의 의미를 가진 ‘離別’을 ‘다르다’의 의미를 가진 ‘各別, 特別, 差別’과 묶어서 분석하였지만 위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월천》, 《월석》에서 ‘離別’의 ‘別’은 ‘各別, 特別, 差別’의 ‘別’과 다른 음을 가졌으므로 이 두 의미를 분리하여 보는 것이 복수음의 문헌적 차이를 포착하는 데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차익중(2014: 176-7)에서는 ‘斷’의 주음 ‘뎀’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자음이 쓰이는 한자어 ‘斷見’이 ‘사람이 죽으면 無가 된다는 견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斷’(뎀)은 ‘끊기다’라는 자동사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²⁸⁾ 본고에서

27) 《월석 23:30b》에 나타나는 ‘淡泊은 몹고 安(한)靜(:짱)홀 씨라’에서는 거성이 아닌 상성으로 주음되어 있으나 이것은 오기·오각으로 판단한다.

다루는 자료가 아니지만 《蒙山法語諺解》에서는 ‘斷’의 주음이 ‘有疑不斷(：뎡)’《蒙山法語諺解:01a》과 같은 자동사 용법과 ‘斷(：뎡)命刀子’《蒙山法語諺解:52b》와 같은 타동사 용법에서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에 《능목》 이후의 주음자들이 ‘끊다’에 ‘뎡’, ‘끊기다’에 ‘뎡’을 단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복수음 구별이 초기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한자는 ‘別, 斷’을 제외하고 모두 성조로 의미를 구별하는 것들이다. 성조만으로 음이 구별되는 것은 다음자 전체에서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초기 문헌의 주음자가 성조만으로 구별되는 다음자에 특별히 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자의 대립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자가 구별되지 않는 문헌에서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 음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외는 ‘論, 量’ 2자이다. ‘論, 量’의 기본의는 ‘논하다, 재다’라는 동사적인 의미고, 그 의미에서 ‘논하는 대상, 재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석상》에서 채택된 음이 둘 다 명사적 파생의를 나타내는 자음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시 한국사람들에게는 ‘論, 量’의 기본의보다 파생의가 더 친숙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현대한국어에서 ‘量’이 단독으로 쓰일 때 ‘재다’의 의미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수량’의 의미로만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 초의 학자들이 ‘량’보다 ‘량’에 더 친숙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論’에 관해서는 한국어에서 파생의로 사용되는 빈도가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論’의 파생의 독음 ‘론’은 본고 문헌에서는 ‘分別功德論, 智度論’과 같이 접미사적인 용법으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성이 《석상》에서 유일음으로 사용된 것은 근고한어음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 ‘論’은 비록 《중원》에서 두 음으로 나타나지만 현대북경어에서 거성음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근고시기에도 구어에서는 거성만으로 통일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 《음의》에서도 ‘有見斷見(斷徒暖反)’이라는 반절이 보인다. ‘徒暖反’은 ‘뎡’에 해당하는 반절이다.

15세기 구어 중국어의 다음자 구별에 대해서 문헌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상-거성 대립을 보이는 全濁音에 관해서는 그 구별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全濁上聲은 15세기 이전에 음운변화를 겪어 全濁去聲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된 한자 중에서 ‘上, 近, 靜, 下, 坐’가 15세기 漢語에서 단음자가 되어 있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한자 중 ‘上’을 제외한 4자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석상》에서 기본음만이 사용되었다. ‘上’은 4.2에서 일관적인 다음자로 다루었으나 《석상》에 한정해서 보면 파생적인 의미인 ‘올리다’의 의미로 쓰인 예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석상》에서는 근고음에서 복수음 구별이 소멸된 ‘上, 近, 靜, 下, 坐’ 중에서 다음자로 주음된 한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설이 맞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든 오류를 근고음 영향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强, 將, 量, 横’은 현대북경음에서도 구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5세기에도 구별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將, 量, 横’에 관해서는 주음자가 단순히 다음자인 것을 잊고 기본음만으로 주음을 단 것으로 볼 수 있다.

‘强’은 중고음에도 현실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성이 주음되는 점이 특이하다. 차익종(2014: 124-5)에서는 《동국》에서 ‘强’의 독음이 ‘깡’ 하나뿐인 것을 근거로 ‘깡’을 不一致音으로 처리하고 그 음이 중고음 혹은 현실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중국에서 편찬된 운서에서 ‘强’은 基本義 ‘세다’로는 평성, 派生義 ‘노력하다’(强 巨兩切 勉也)《集韻 6:22a》)로는 상성으로 읽는 다음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동국》의 일반적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동국》에서 ‘强’이 거성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동국》에 이러한 독음이 실리게 된 것은 《운회 23:18b》 ‘其亮切’을 그대로 계승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월석》의 주음 ‘·깡’은 《동국》의 오류에 이끌린 것이고, 그 오류는 《능목》에서 중고음의 기준에 따라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2.2. 음역어 관련 단→복수음 변화

다음자 양상이 문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한자 중에서 음역어와 관련된 한자는 ‘薄’ 1자이다.

(13)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薄	일식	薄蝕	-	-	-	-	·뺍
	(음역)	薄拘羅	·뺍	-	-	·뺍	·박

‘薄’은 《능목》에 나타나는 ‘薄蝕’을 제외하고 모두 음역어 표기에만 사용된다. 음역어에 나타나는 ‘薄’의 주음은 《석상》, 《월석》에서는 ‘·뺍’, 《능목》에서는 ‘·박’이다. 3개 문헌에서 ‘薄’이 쓰이는 음역어로는 ‘薄拘羅’, ‘薄伽梵’ 두 개가 있다. 《음의》에는 두 단어에 대한 주음이 없지만 希麟의 《一切經音義》에는 ‘薄伽梵’의 ‘薄’에 대해 ‘·뺍’에 해당하는 반절이 달려 있다. 따라서 《능목》의 ‘·박’은 ‘薄’의 현실음 ‘·박’의 영향으로 생긴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5.3. 복수음 구별 기준의 변화

문헌 중에는 일관적으로 다음자로 나타나되 문헌마다 음과 의미의 대응 양상이 약간씩 다른 한자가 있다. ‘重, 使, 厭, 分, 觀’이 이에 해당한다.

① 重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重	무겁다, 중요하다	尊重, 重罪	:뚱	:뚱	-	:뚱	:뚱	zhong4
	겹치다	重復, 重疊	-	-	-	뚱	뚱	chong2
	~겹	二重, 七重	-	-	-	뚱	:뚱	

문헌에 나타나는 ‘重’이 가지는 의미는 ‘무겁다, 중요하다’, ‘겹치다’, ‘~겹’ 세 가지로 나뉜다. 운서와 음의서에 따르면 ‘무겁다, 중요하다’의 의미로는 去聲, ‘겹치다’와 ‘~겹’의 의미로는 平聲으로 읽어야 한다.

《월석》, 《석상》, 《월천》에는 이러한 기준에 위반되는 주음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능목》에서는 ‘~겹’을 ‘똥’으로 주음하였다.²⁹⁾ 이러한 주음은 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똥’에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② 使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使	-게 하다	使 ^ㄴ 字	-	-	-	·승	-	shi3
	시키다, 부리다	役使鬼	-	-	-	·승	·승	
	번뇌(불교)	十使, 結使	-	-	-	·승	·승	
	말을 전하러 가다	使者, 王使	·승	·스	-	·승	·승	

각종 운서를 분석해본 결과 ‘使’에는 基本義 ‘시키다’와 派生義 ‘말을 전하러 가다’가 존재하며, 각각 상성음, 거성음과 대응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차익종(2014: 160)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불교에서 ‘使’는 ‘煩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불교학에서는 그 이유를 ‘煩惱는 사람을 몰아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稱한다’(中村元 1981: 539)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월석 07:45b》에서도 ‘使(·승)는 브릴 씨니 凡夫 | 갓근 惑心으로 妄量엿 해물 그치들 몬호야 三界에 나디 몬호미 그잇 使(·승)者 (:장) | 罪人 조차 들니는 듯 흘씨 使(·승) | 라 흐니’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월석》의 편찬자들도 번뇌를 의미하는 ‘使’가 ‘시키다’라

29) 차익종(2014: 148-9)에서는 ‘重’의 복수음 양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불규칙적인 대응에 대한 언급이 없다. 차익종(2014)가 다룬 권1에는 이러한 주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는 의미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키다’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하다’, ‘번뇌’는 상성으로 주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석》에서 ‘시키다, 번뇌’의 의미로 쓰인 ‘使’가 독음 ‘·승’를 갖게 된 것은 한국 학자들에 있어서 이 파생의가 기본의보다 친근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중세 지식인들의 일상생활에서 ‘使令, 使役’과 같은 추상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어보다 ‘使者, 勅使’와 같은 구체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빈번하게 쓰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③ 厭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厭	가위놀리게 하다	厭禱鬼	·합	-	-	:염	:염	-
	만족하다	無厭足	-	-	-	염	염	yan4
	싫어하다	捨厭	-	-	-	-	·염	

‘厭’에 대한 반절은 운서와 음의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독음이 서로 다르다. 각 문헌에 나타나는 주음이 어느 쪽 음계에 가까운지를 보기 위해서 운서와 음의서의 반절을 정리한 것이 다음 표이다.

(14)

	운서			慧琳의 《一切經音義》		
	설명	서명	반절	항목	주음자	반절
가위놀리게 하다	厭 魅也	광운	於琰切(:염)	厭禱	玄應先撰慧琳添修	於琰反(:염)
					慧琳	伊琰反(:염) 烏琰反(:염)
만족하다	食不厭	광운	於豔切(:염)	厭足	慧琳	伊閭反(:염)
				無厭足	慧苑	於鹽反(:염)
싫어하다	惡也	광운	於琰切(:염)	厭惡	玄應	伊焰反(:염)
					慧琳	

두 표를 비교하면 《월석》과 《능목》의 독음이 《一切經音義》의 반절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월석》과 《능목》의 편찬자가 운서보다 《一切經音義》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석상》에서 보이는 ‘합’은 어느 문헌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아마도 ‘가위 놀리게 하다’와 비슷한 의미 ‘누르다’를 가지는 ‘押’의 독음인 ‘합’에서 유추된 주음인 것으로 보인다.

④ 分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分	나누다	分身, 分住, 分析	분	-	-	분	분	fen1
	알다	分別, 分揀	-	분	-	분	분	
	밝히다	分明	분	-	-	분	분	
	시간	後分	-	-	-	분	-	
	단위	훈 分, 네 分	분	-	-	·뿐	분	
	부분	四分, 序分, 少分	분	-	-	·뿐	·뿐	
	종류	八分齋戒, 四分律	분	-	·뿐	·뿐	-	fen4
	성질	勢分	-	-	-	·뿐	-	
	한계, 신분	分段身, 分限	·뿐	-	-	·뿐	·뿐	
	(사람 존칭)	兩分, 三分, 세 分	-	·뿐	-	·뿐	-	
(음역)	分陀羅, 分衛	-	-	-	분	분	-	

‘分’은 많은 의미로 사용되며 심지어는 고유어 명사 ‘분’을 표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운서와 음의서의 기술과 의미적인 연결성을 근거로 추측할 때 위에 정리한 의미 중에서 ‘나누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공유하는 ‘나누다, 알다, 밝히다’는 평성음, ‘나누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 단위, 부분, 종류, 성질, 한계, 신분’은 거성음을 가지는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익종(2014: 171-2)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차익종(2014: 171-2)에서는 이러한 의미구별이 『석보상절』 권19를 제외하면 엄격히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본고에서 위 표와 같이 분류한 결과 《월석》과 《능목》에서도 이 기준을 벗어나는 용례가 발견되었다.³⁰⁾ 이는 주음자들이 수많은 의미를 가지는 ‘分’의 주음 구별 기준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석상》의 주음 양상이 현대북경음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만약 근고한어에서 ‘分’의 복수음 구별 기준이 현대북경어와 같았다고 가정한다면, 《석상》의 주음자가 복잡한 ‘分’에 주음 기준으로 근고한어를 참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⑤ 觀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觀	보다	觀世音, 覺觀	관	관	-	관	관	guan1
	보는 시각	正觀, 邪觀, 靜觀	관	관	-	관	·관	
	보는 건물	書雲觀, 園林臺觀	-	-	-	·관	·관	guan4

‘觀’은 모든 문헌을 통해서 ‘보다’라는 의미로는 ‘관’, ‘멀리 보기 위한 건물(=樓)’라는 의미로는 ‘·관’으로 주음되지만 ‘보는 시각’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문헌에 따라 ‘관’ 혹은 ‘·관’으로 주음된다. 차익종(2014: 175-6)에서는 본고에서 ‘보는 시각’으로 파악하는 의미가 ‘보다’의 의미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성으로 주음한 것은 방점의 혼란’이라고 봤다. 그러나 《능목》의 문맥을 보면 평성으로 주음된 ‘관’이 ‘보다’라는 동

30) 또한 차익종(2014: 171-2)에서는 ‘分(·뽀)段身’《석상 19:19b》를 기준에 맞지 않은 ‘오류’로 보았으나 ‘分段身’은 ‘수명에 한계가 있는 몸’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分’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고나 차익종(2014: 171-2)에서 세운 기준에 맞는 주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적 의미, 거성으로 주음된 ‘관’이 ‘시각’이라는 명사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을 나타내는 ‘觀’은 《월석》까지 ‘각’으로 표시되었다가 《능목》 이후 ‘각’으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차익중(2014: 175-6, 226)의 자료에 따르면 《法華經諺解》도 《능목》과 같은 기준으로 주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능목》의 주음자의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의미에 대응하는 평성 자음에서 파생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성 자음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 중에서는 ‘觀’에 대해서 그러한 자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었다. 따라서 간경도감의 주음자들이 어떠한 전고를 근거로 이러한 주음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 싶다.

5.4. 특정어휘의 한자음 변화

마지막으로, 특정 한자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문헌마다 상이한 독음을 보이는 한자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한자로는 ‘行, 解, 塞, 怨, 夫’가 있다.

① 修行의 行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行	행하다, 가다	同行, 周行	행	행	-	행	행	xing2
	행해진 행동	苦行, 菩薩行	·행31)	·행	-	·행	·행	
	순서	行列, 七寶行樹	행	행	-	행	-	hang2
	修行		·행	·행	행	행, ·행	행	xing2

31) 차익중(2014: 188-191)에서는 ‘行’이 파생적인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發願

‘行’은 모든 문헌에서 ‘행, ·행, 행’ 세 가지 음으로 나타나며, 각각 ‘행하다, 행해진 행동, 순서’라는 의미와 대응한다. 이 대응관계는 네 문헌 전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지만 ‘修行’ 중에 쓰이는 ‘行’만은 예외적으로 문헌마다 성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차익중(2014: 188-81)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修行’의 ‘行’은 《석보》 및 《월천》에서는 ‘·행’, 《월석》에서는 ‘행, ·행’ 두 가지 음, 《능묵》에서는 오류로 보이는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행’으로 나타난다. 《월석》에서는 ‘행’이 8번, ‘·행’이 28번 나타나는데 이들 한자음의 방점이 무작위로 달린 것은 아니다. ‘修行’이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修(슌)行(행)’, 자동사 및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修(슌)行(·행)’으로 읽힌다.

- (15) a. 설흔여스센 내 成佛~~하~~야 諸佛 나랏 中에 菩薩이 내 일흠 듣고 修(슌)行(·행)하야 菩提에 다들디 묻~~하~~면 正覺 일우디 아니호리 이다 《월석 8:64b》
- b. 그~~썩~~ 世自在王佛이 二百一十億 諸佛 나라~~하~~ 天人의 어덜며 사오 나봄과 짜히 곱업스며 兜訶~~물~~ 닐어시닐 法藏比丘 | 들~~즈~~불시고 다~~스~~ 劫을 修(슌)行(·행)하샤 世自在王如來~~스~~ 알~~피~~ 마~~순~~여들 가~~짓~~ 큰 願을 發~~하~~시니 《월석 8:59b》
- c. 難陀 | 하·닐~~해~~ ·가 나·고·져 ·~~하~~·야 修(슌)行(·행)을 브~~즈~~러니 ~~하~~더라 《월석 7:12b》
- d. 夫人이 六度~~를~~ 修(슌)行(행)하더시니 《월석 2:24b》
- e. 聲聞은 生滅四諦~~를~~ 브터 ~~외~~ 修(슌)行(행)하야 《월석 14:66a》
- f. 如來~~스~~ 法 듣고 ~~하~~다가 디너 닐~~그~~며 외와 말~~다~~비 修(슌)行(행)하디 《월석 13:53b》
- g. 隨喜라 닐오~~민~~ 能~~히~~ 一心으로 드러 닐~~거~~ 말~~다~~비 修(슌)行(행) 묻

行(행)호노라’《석보 6:8b》에서 평성으로 된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주음자가 이 부분을 ‘發願(을) 行호노라’로 해석하고 주음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오류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호야도 《월석 17:44b-45b》

(15a-b)는 ‘修行ᄃ다’가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쓰일 때 ‘行’이 거성으로 나타난 예이며, (15c)는 ‘修行’이 명사로 쓰일 때 ‘行’이 거성으로 나타난 예이다. ‘修行’이 명사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六度入 修行’과 같은 구조에서는 의미상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15c)에서는 그러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 취급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15e-f)는 ‘修行ᄃ다’가 같은 구 혹은 같은 문장 안에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에 평성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15g)는 표면적으로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유형에 속하는 문장은 모두 《월석》 중 法華經 부분에 등장하는 문장이며, 문맥상 ‘法華經을 修行ᄃ다’라는 목적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修行ᄃ다’가 ‘듣다, 낚다’ 등 다른 타동사와 함께 열거된 것도 생략된 목적어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월석》에서 ‘修行’의 ‘行’은 ‘修行’이 명사 및 자동사로 쓰일 때는 거성으로 주음되며, 타동사로 쓰일 때는 평성으로 주음된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는 37예 중 3예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 (16) a. 부테 四神足을 ᄃ마 만히 修(슌)行(·행)ᄃ홀씨 《월석 23:99a》
 b. 이 戒는 諸佛菩薩入 修(슌)行(·행)ᄃᄃ시논 즘릘길히라 《월석 9:17a-b》
 c. 내 無上道理ᄃ트 들 發호니 願ᄃ든 經法을 니르샤 正覺을 어서
 일위 죽사릿 根源을 싸혀나기 ᄃ쇼셔 내 修(슌)行(·행)ᄃ호리이다
 《월석 8:59b》

위의 예는 모두 직접적인 혹은 문맥상의 목적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行’이 거성으로 나타나므로 예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修行’이라는 단어의 성조 차이는 ‘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별과 관련이 있다. 즉 ‘修行’이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 ‘修’와 ‘行’은 모두 같은 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타동사로 해석되기 때문에 ‘行’은 타동사를 나타내는 평성으로 읽혀야 한다. 반면 ‘修行’이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 타동사인 ‘修’가 타동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목적어가 달리 없기 때문에 ‘行’이 목적어 기능을 하게 되어 명사를 나타내는 거성을 가지게 된다.

‘修行’의 ‘行’에 대한 《음의》의 반절은 ‘행’에 해당하는 ‘下孟反’이다. 이는 ‘修行’의 내부적 구조가 한어에서 원래 ‘동사+목적어’ 즉 ‘行을 닦다’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석상》에서 보이는 ‘修(슌)行(행)’이라는 주음은 단순히 이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월석》의 주음자들은 이 한자어를 더욱 정확하게 주음하기 위해서 앞서 추측한 바와 같은 주음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능목》 이후에서 이러한 구별이 폐지된 이유는 아무래도 ‘修行’의 모든 사용례에 대해서 일일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번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월석》 이후에 간행된 《능목》, 《金剛經諺解》, 《牧牛子修心經諺解》에서는 ‘修行’의 주음 방법을 《석상》에서 취했던 중국식 주음 ‘修(슌)行(행)’으로 돌리는 대신 ‘修(슌)行(행)’을 사용하기 시작했다.³²⁾ 이는 《월석》식 주음의 흔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능목》 이후 문헌의 주음자들은 모든 ‘修行하다’를 타동사로 보기로 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되는 일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단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解脫의 解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解	풀다	解說	-	-	-	:갱	-	jie3
	알다	解空	:행	-	-	:행	:행	jie3 ³³⁾
	‘解脫’		:행	-	:갱	:갱	:갱	jie3

32) 차익종(2014: 188-191)의 자료에 따르면 《南明集諺解》와 《靈驗略抄》에서도 ‘修(슌)行(행)’이 사용된다고 한다.

33) ‘解’가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xie4’로 발음될 때도 있다. 사전에는 ‘解不開’라는

여러 운서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解’는 ‘풀다’ 뜻으로는 ‘꺽’, ‘알다’ 뜻으로는 ‘행’로 읽는 것이 원칙이다. 네 문헌을 봐도 이 기준을 위반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解脫’의 ‘解’는 문헌에 따라 달리 읽힌다. 차익중(2014: 107-8, 168)에서는 ‘解脫’의 ‘解’가 不一致音 ‘행’로 나타나는 문헌 이외에서는 ‘解’가 항상 ‘꺽’로 나타난다고 기술하였지만 《석상》에서는 다른 문헌과 달리 ‘解脫’의 ‘解’가 ‘행’로 나타난다.

불교에서 ‘解脫’은 ‘(윤회, 번뇌에서)풀려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解’가 담당하는 의미는 ‘풀리다’이다. 따라서 ‘解’의 한자음 ‘꺽’과 ‘행’의 대립을 ‘풀다’와 ‘알다’의 대립으로 본다면 ‘꺽’로 읽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변》에 나타나는 ‘解 散也 戶買切’이라는 기술에서 ‘풀리다’는 ‘꺽’가 아니라 ‘행’로 읽는 것이 원래 중고음 독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봐도 ‘풀리다’는 ‘알다’라는 의미와 가깝기 때문에 기원적으로는 ‘풀다’(꺽)에서 먼저 ‘풀리다’(행)가 파생되고 ‘풀리다’(행)가 나중에 ‘알다’(행)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解脫’은 중고음 기준에 따르면 ‘解(행)脫(·뽕)’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³⁴⁾

《석상》에 나타나는 ‘解(행)脫(·뽕)’은 중고음식 발음을 그대로 계승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개서부터 나타나는 ‘解(꺽)脫(·뽕)’은, ‘꺽’대 ‘행’의 의미대립을 ‘알다’대 ‘풀다’로 보고 그 시각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만든 주음이라고 하겠다.

‘解脫’은 《法華經諺解》에서는 ‘解(행)脫(·뽕)’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인 만큼 그 독법이 꾸준히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문을 들어서 이 경우 ‘解’가 ‘xie4’로 읽힌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하얼빈 출신 중국인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북방에서는 이것을 ‘jie3’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34) 일본 뭇음에서 ‘解脫’이 ‘gedatu(げだつ)’로 읽히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③ 優婆塞의 塞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塞	막다	通塞	-	-	-	-	·숙	sai1
	막힌 곳	-	-	-	-	-	-	sai4
	‘波塞奇’		·싱	-	-	·숙	-	se4
	‘優婆塞’		·싱	-	·숙	·숙	·숙	

네 문헌에서 ‘塞’은 대부분 음역어의 일부로 사용된다. 왕의 이름 ‘波塞奇’의 ‘塞’은 모든 문헌에서 ‘·숙’으로 주음되었지만 ‘優婆塞’(Skt. upāsaka)은 《석상》에서 ‘·싱’로 읽혔다가 개서에서 ‘·숙’으로 수정을 당하고 그 이후 문헌인 《월석》, 《능목》에서도 계속 ‘·숙’으로 읽혔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차익중(2014: 167)와도 일치한다.

《음의》에는 ‘優婆塞’에 대한 음주가 없기 때문에 중고한어에서 ‘塞’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직접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산스크리트 원어 ‘upāsaka’에 운미 -k와 대응하는 발음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일본어에서 입성을 반영한 ‘ubasoku(うばそく)’로 읽는 점, 현대북경어로 ‘·싱’에 대응하는 음에 기원을 두는 ‘sai4’가 아니라 ‘·숙’에 대응하는 음에 기원을 두는 ‘se4’로 읽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고한어에서도 입성으로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실음으로 주음된 중세 불교문헌에는 ‘優婆塞’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15세기 현실음을 알 수 없지만 현대한국어로 ‘우바새’로 읽는 것으로 보아 ‘優婆塞’의 ‘塞’을 거성으로 읽는 것은 15세기 이전부터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온 한반도 특유의 발음 습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따라서 《석상》의 주음 ‘·싱’은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고, 그것을 《석상》수정 과정에서 중고음에 맞춰서 ‘·숙’으로 고친 것으로 해석된다.

35) 현실음을 반영한 《改刊法華經》(1500)에서 ‘優(우)婆(바)塞(·식)’으로 주음되었는데 이 문헌의 현실음은 동국정운음의 강한 영향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현실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魔怨의 怨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怨	원수	怨讐	원	원	-	원	·원	yuan4
	원수로 삼다	怨望	·원	-	-	·원	·원	
	'魔怨'		·원	-	-	원	-	-

‘怨’은 《석상》, 《월석》에서 ‘원수’의 뜻으로는 ‘원’, ‘원수로 삼다, 미워하다’의 뜻으로는 ‘·원’으로 주음된다. 이 기준은 각종 운서의 기술과도 일치한다. ‘怨’은 《능목》에서 의미와 관계없이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본고 5.2.1.에서 논의한 ‘다음자가 유일음으로 주음될 때는 기본의에 해당하는 대표음으로 주음된다’는 일반적 경향에 위반되는 예이다.³⁶⁾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미와 관계없이 ‘·원’으로 나타나는 현실음의 영향, 혹은 근고한어의 영향이다. 현대북경음으로도 그렇지만 《중원》에서도 ‘怨’은 거성으로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魔怨’의 주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魔怨’의 ‘怨’은 《석상》에서는 거성, 《월석》에서는 평성으로 주음되어 있다.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는 ‘魔怨’에 대한 음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주음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中村元(1981)에서의 ‘魔怨’에 대한 ‘악마. 악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일을 하는 怨敵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라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월석》의 주음이 맞는 셈이다. 《월석》의 주음자가 어떠한 문헌에 근거하여 이러한 改音を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교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올바른 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36) 여기서 거성에 대응하는 ‘미워하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기본의로 보지 않고 평성에 대응하는 ‘원수’라는 명사적 의미를 기본의로 보는 것은 평성 혹은 상성이 기본의에 대응하고 거성이 파생의에 대응하는 다음자의 일반적 경향에 근거를 둔 것이다.

⑤ 功夫의 夫

	의미	용례	석상	월천	석상 개서	월석	능목	북경
夫	남자, 남편	凡夫, 丈夫, 夫人	붕	붕	-	붕	붕	fu1
	'功夫'		붕	-	-	붕	뽕	

‘夫’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헌을 통해서 ‘붕’로 주음된다. 운서의 반절도 이와 일치한다. 하지만 《능목》에서는 ‘功夫’를 주음할 때에 한하여 ‘뽕’가 사용된다. 운서에 이에 대응하는 반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무릇’이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功夫’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차익중(2014: 141)와도 일치한다.

‘뽕’가 특정 어휘에만 쓰이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오기·오각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음의사에 전고를 두고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찾는 일은 차후 연구과제로 삼고 싶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을 당시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자음에 대한 지식과 태도라는 관점에서 재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적어도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네 문헌의 주음자들은 한자음에 대해서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표면적인 한자에 얽매이지 않고 本字의 독음에 따라 통가자를 주음할 수 있고, 의미에 따라 다음자에 적절한 독음을 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월석》의 주음자는 ‘修行’의 주음에 대해서 통사론적 분류에 따른 새로운 구별을 만들어냈는데 이것 또한 다음자 구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동국정운의 특징 중 하나인 ‘중고음을 규범으로 삼은 이상적인 한자

음'이라는 특징은 실제 주음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 당시 중국어에서 이미 소멸된 다음자에 대해서까지 운서나 음의서를 참고하면서 그 의미 구별을 재현하려고 하는 노력은 당시 중국어에서 이미 소멸되었고 현실 한자음에도 없었던 全濁音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동국정운음의 체계와도 일맥상통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네 문헌에서 주음에 관한 오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음 대상이 현실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울 만큼 낮은 비율이다. 그리고 예컨대 어떤 한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독음이 의미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주음된다는 등의 일관성 없는 오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산발적(3.1.) 혹은 일관적 오류(5.1.)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은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이 현실음의 영향이라는 사실이다. 동국정운음이 어디까지나 인공적인 한자음이었을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에는 근고한어음의 영향도 약간이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負’에서 산발적으로, ‘富, 婦, 部’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종성 ‘ㄹ’에 관한 오류는 중고시대에 존재했던 운미 ‘-w’를 잃은 근고음을 기준으로 주음한 결과 생긴 오류로 분석된다.

다음자 표기에 관해서도 근고한어음의 영향이 관찰된다. 5.2.에서 본 바와 같이 근고한어에서 복수음이 소멸한 것이 확실한 다음자 ‘近, 靜, 下, 坐, 上’이 《석상》에서 모두 한 독음만으로 주음되었다는 사실은 주음자들이 다음자의 주음을 할 때 근고한어음을 참고한 증거로 해석된다. 그리고 《석상》 주음자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分’(5.3.)의 주음 기준으로 근고한어음을 사용한 흔적도 관찰된다. 주음자들이 근고한어의 영향을 받게 된 이유는 현실한자음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중고한어의 다음자 구별을 근고한어는 대부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³⁷⁾

문헌의 개별적인 특징에 대해서 보면 《석상》은 훈민정음 창제 이

37) 중세 자료 중에서 한글로 표기되는 한자어 중에서도 ‘위두ᄃ·다’와 ‘위·ᄃ·야’에 포함되는 ‘爲’처럼 원래 중고음의 복수음 구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예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大部 문헌인만큼 오각이 다른 문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다른 문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빙’과 ‘오’의 혼동이나 방점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오각 등도 발견된다. 불교용어에서 ‘目捷連’(5.1.), ‘優婆塞’(5.4.) 등 중고한어에는 보이지 않는 한반도 고유의 독법이 드러나는 것도 《석상》의 특징이다. 특히 ‘目捷連’은 신라 시대 順璿의 반절과 성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월천》은 《석상》과 간행시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석상》에 비해서 오류가 적다는 것을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세 문헌에 비해서 전체적인 텍스트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월석》과 그 이전의 문헌을 구별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불교용어에 관한 주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월석》은 《석상》에서 단순히 현실음을 참고하여 음을 골랐던 ‘聚’(5.1.), ‘厭’(5.3.), ‘魔怨’(5.4.)에 불교학적으로 정당성 있는 주음을 달았다. 본고에서는 음의서로 《음의》 하나만을 참고하였으므로 전고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觀’(5.3.)이나 ‘功夫’의 ‘夫’(5.4.)에 대한 주음의 변화도 음의서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능목》에서도 음의서를 중시하는 《석상》의 주음 태도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漑’(5.1.)에 관해서는 《월석》이 玄應의 반절을 채택한 반면 《능목》에서는 慧琳의 반절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 그 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다. 《능목》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월석》보다 후기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비교적 많다는 것이다. 이전 문헌에서 정확히 주음되었던 한자에서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고 있었던 복수음 구별이 없어지기도 했다. 《능목》은 선행하는 活字本의 개정판이라는 점에서 《월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자음에 관해서는 《월석》만큼 철저한 주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논저]

- 權仁瀚(1997), 고려시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일고찰 : 《삼국유사》소재 찬시의 압운 분석을 중심으로, 《冠岳語文研究》 22, 289-316.
- 權仁瀚(2009), 《中世韓國漢字音音訓集成(改訂版)》, 제이앤씨.
- 金正彬(2003), 日本 《妙法蓮華經釋門》에 나타나는 新羅 順憬師의 反切에 대하여 (上) : 中國漢語史와 日本吳音의 比較를 통해서, 《口訣研究》 11, 275-298.
- 金正彬(2004), 日本 《妙法蓮華經釋門》에 나타나는 新羅 順憬師의 反切에 대하여 (下) : 漢語史와 日本吳音과의 比較를 통하여, 《口訣研究》 13, 99-127.
- 남광우(1966),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한국연구원.
- 南豊鉉(2003), 新羅僧 順憬과 憬興의 法華經 註釋書에 대하여, 《口訣研究》 10, 31-46.
- 안병희(1974), 釋譜詳節의 교정에 대하여, 《국어학》 2, 국어학회. (안병희(1992)에 재록)
- 안병희(1991), 月印千江之曲의 교정에 대하여, 《석정 이승욱선생 회갑기념논총》. (안병희(1992)에 재록)
- 안병희(1992),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 知性社.
- 俞昌均(1966가), 《東國正韻研究》研究篇, 螢雪出版社.
- 俞昌均(1966나), 《東國正韻研究》復元篇, 螢雪出版社.
- 李東林(1967가), 《東國正韻研究》研究篇, 東國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 李東林(1967나), 《東國正韻研究》復元篇, 東國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 李承宰(2008), 7世紀 末葉의 韓國語 資料 - 璟興撰 《无量壽經連義述文贊》의 註釋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20, 123-178.
- 정경일(2002),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 차익중(2014),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研究》, 東京大學人文社會系研究科 博士學位論文.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의 研究》, 博士學位論文. (河野六郎(1979)에 재록)
- 河野六郎(1979), 《河野六郎著作集 第2卷》, 平凡社.
- 中村元(1981), 《佛教語大辭典》, 東京書籍.
- 福井玲(2013), 《韓國語音韻史의 探求》, 三省堂.

[문헌자료]

- 《釋譜詳節》 권6, 9, 13, 19 : 국립도서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권20, 21 : 호암미술관 소장본 (홍윤표 교수 촬영 사진자료)
권23, 24 : 동국대학교 소장본 (동국대학교출판부 영인본(칼라))
- 《月印千江之曲》 권上 : 호암미술관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자료)
- 《月印釋譜》 권1, 2 : 서강대학교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권7, 8 : 동국대학교 소장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권9, 10 : 김민영 씨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자료)
권11, 12 : 호암미술관 소장본 (국가문화기록 공개 사진자료)
권13, 14 : 연세대학교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권15 : 淳昌 龜巖寺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권17, 18 : 平昌 月精寺 소장본 (국가문화기록 공개 사진자료)
권19, 20 : 가야대학교 소장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권23 : 김종규 씨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자료)
권25 : 長興 寶林寺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 《楞嚴經諺解》(木版本) 권1~10 : 동국대학교 소장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 《蒙山法語諺解》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 《法華經諺解》 권1~7 : 동국대학교 소장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 《金剛經諺解》 불갑사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 《牧牛子修心經諺解》 동경대학교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 《改刊法華經》 권1, 2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자료)
- 《東國正韻》 권1~6 : 건국대학교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자료)
- 《廣韻》 周祖謨 校本 (中華書局 영인본)
- 《集韻》 (中華書局 영인본)
- 《古今韻會舉要》 (中華書局 영인본)
- 《中原音韻》 (藝文印書館 영인본)
- 《一切經音義》 大正新修大藏經, Vol.54, No.2128 (中國電子佛典協會 공개 자료)
- 《續一切經音義》 大正新修大藏經, Vol.54, No.2129 (中國電子佛典協會 공개 자료)
- 《釋迦譜》 大正新修大藏經, Vol.50, No.2040 (中國電子佛典協會 공개 자료)
- 《楞嚴經圓通疏》 卍新纂續藏經, Vol.12, No.281 (中國電子佛典協會 공개 자료)
- 《康熙字典》 <http://www.zdic.net/>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E-mail: takayoshi2000@hotmail.com

투고 일자: 2014. 5. 18.

심사 일자: 2014. 5. 22.

게재 확정 일자: 2014. 5. 30.

Dōngguózhèngyùn-style Sounds Notated in the Early
Hangeul Texts

- With Focus on Multiple Sound Characters -

[ITO, Takayoshi]

초기 언해문헌의 동국정운식 한자음 연구 - 주음 오류와 복수음
의미구별 양상을 중심으로 -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

This study analyzes the *Dōngguózhèngyùn*(東國正韻)-style sounds notated in the *Shìpǔ xiángjié*(釋譜詳節), the *Yuèyìn qiānjiāng zhī qǔ*(月印千江之曲), the *Yuèyìn shìpǔ*(月印釋譜) and the printed edition of the *Léngyánjīng yàjiě*(楞嚴經訖解) in order to characterize academic knowledge and attitude to Sino-Korean sounds of early Joseon dynasty scholar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 accuracy of notations toward phonetic loan characters (通假字) and multiple sound characters(多音字) demonstrates that sound notators of the four texts had excellent knowledge of Chinese phonology. The notator(s) of the *Yuèyìng shìpǔ* even invited unique sound-notating criterion regarding the word *xiū xíng*(修行).

Secondly, the result of the analysis toward mistakes on sound notations implies that notators referred to actual Sino-Korean sounds and Early Mandarin sounds when choosing the *Dōngguózhèngyùn*-style sounds.

Thirdly, sound notations of Buddhism term were decided according to Korean traditional pronunciation or rhymebooks in the *Shìpǔ xiángjié* and the *Yuèyìng qiānjiāng zhī qǔ*, but according to accurate Buddhist knowledge in the texts after the *Yuèyìng shìpǔ*.

Key words: *Dōngguózhèngyùn*, Sino-Korean sound, multiple sound character, multiple sound, phonetic loan character